

익산시, 국립박물관 활용 관광마케팅 '시동'

카페테리아·전망대 등 조성
500만 관광시대 인프라 확충
10개 박물관 투어 프로그램 진행
백제왕궁 등 3600억 투입 정비



주말을 맞아 국립익산박물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해설사로부터 미륵사지 석탑 모형물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익산시 제공>

익산시가 국립익산박물관을 활용한 관광 마케팅에 시동을 건다. 익산시에 따르면 국립박물관 개관을 기점으로 500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관광객 편의를 위해 다음 달까지 카페테리아와 쉼터 등을 조성하고 전망대와 경관조명 설치, 높이공간 등을 순차적으로 확충한다. 또 미륵사지, 박물관 관람 동선을 새롭게 정비하고 진행 중인 미륵사지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인해 박물관 이용객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임시 주차공간과 관광안내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박물관 주변에 추진 중인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사업은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곳에는 공원과 광장, 주차장, 전통체험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관광산업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속도를 올린다.

국립익산박물관 개관을 기념해 익산역부터 익산문화원, 국립익산박물관까지 연결하는 시티투어 버스를 운행한다. 시티투어 버스는 2월 29일까지 매주 토요일, 공휴일에 익산역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지역에 있는 10개 박물관을 돌아보며 역사를 배우는 박물관 투어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한다. 시는 특히 관광 상품개발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미륵사지와 백제왕궁, 향릉 등

의 역사자원에 스토리텔링을 접목한 '고백도시 익산' 프로그램을 활용, 관광 상품으로 개발한다. 또 식품산업과 교육 분야, 근대역사자원 등을 활용한 테마 관광 상품을 추진해 적극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미륵사지 정비 현장 공개,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여행과 생생문화재 프로그램 확대 등으로 지역 문화유산 관광 활성화를 꾀한다. 시는 관광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기반으

로 무왕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백제왕궁과 미륵사지, 무왕릉 등 6곳의 백제왕도핵심유적에 약 3600억원을 투입해 2038년까지 정비하고 복원에 한계가 있는 유적은 ICT기술을 활용한 가상복원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무왕 도시' 이미지를 적극 알리기 위해 주요 거점 지역에 역사문화공간을 조성해 도시브랜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순창군, 도시민에 장독대 분양

고추장·된장·간장 3가지...장 담그기 체험도

순창군은 2월 22일 전통고추장민속마을에서 도시민에게 장독대를 분양하고 장 담그기 체험 행사를 연다. <사진> 장독대는 개당 10만원이며 고추장, 된장, 간장 등 3가지 세트로 나눠 판매한다. 이날 직접 담근 장은 장류 장인들이 전통방식으로 6개월간 숙성해 돌려준다. 장독대를 분양 받지 못한 도시민들에게도 장을 담글 수 있는 체험 기회가 주어진다. 참가자들은 한복을 입고 체험을 할 수 있다. /순창=정양근 기자 jyg@

전통문화체험과 발효소스토굴 등 장류 산업 관광도 함께 이뤄진다. 체험 희망자는 다음 달 21일까지 순창군 미생물산업사업소 문의, 신청하면 된다. 김재건 순창군 미생물사업소 소장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장 담그기' 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며 "이번 행사로 사라져가는 장 담그기 문화를 널리 알리고 전통장의 보급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순창=정양근 기자 jyg@

군산시, '돈 되는 수산업' 지원사업 신청자 접수

군산시가 경기침체와 어획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돈되는 수산업, 풍요로운 어촌'을 위해 2월 10일까지 '2021년도 해양수산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사업은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자율관리 어업육성 ▲어업기반정비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사업 등 정부지원 수산관련 사업 전반이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대상은어업인·어촌계·영어조합법인·수협·수산물 식품가공업자·농수산회사법인 등 사업지침에 지원자격이 명시된 군산시민이다. 군산시청 수산진흥과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민간자율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성 검토와 신용조사 등을 거쳐 자체심의를 통해 자금지원 우선순위를 결정할 후 전라북도 및 해양수산부에 국가예산 등을 신청할 계획이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귀성객에 따뜻한 '고향의 선물'

정읍시 애향운동본부, 대추차 등 나눠줘

정읍시 애향운동본부(이사장 이한옥)는 지난 24일 정읍역에서 설 명절 귀성객 환영 행사를 펼쳤다. 애향운동본부 회원들은 이날 먼 길을 달려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에게 대추차와 정읍 대표 농특산물인 귀리, 두릅떡 등을 선물하며 고향의 따뜻한 정을 전했다. 또 정읍시 관광 홍보물을 나눠주며 고향의 훈훈한 소식을 전하는 등 장시간 고향을 찾는 귀성객의 피로를 풀어주며 고향의 정겨움을 나눴다. 이날 유진섭 정읍시장도 정읍역을 찾아 귀성객을 반갑게 맞이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유 시장은 귀성객들에게 신년인사와 함께 '향기를 머금은 치유도시 정읍'을 알리고 '내장산단풍 겨울빛축제' 등 진행중인 축제 홍보도 잊지 않았다. 유 시장은 "변화하고 성장하는 정읍을 알리겠다"며 "더 좋은 정읍을 만들 수 있도록 고향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는 설 명절 연휴 기간에 시민이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세우고 각종 재난 예방 및 편의제공에 힘을 다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유진섭 정읍시장과 이한옥 애향운동본부장 등이 지난 24일 정읍역에서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에게 떡 등을 나눠주고 있다. <정읍시 제공>

고창군, 농업분야 40개 사업 새기술 보급 추진

고창군이 농업분야 전반에 대한 새기술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농업분야 40개 사업에 30억원을 투입해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다. 올해 진행되는 분야는 고창 농산업 활성화지원, 농촌청년 창업 활성화 사업지

원, 고창식초마을 육성, 농식품 가공상품 기술개발 지원사업, 특산자원 융복합 생산시설 구축사업, 외래품종 대체 최고품질 벼 생산·공급 거점단지 육성 등 농업분야 40개 사업이다.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군청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시돼 있으며,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 농업인상담소를 방문해 문의하면 된다.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이나 단체는 다음 달 3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 농업인상담소에 신청하면 된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정읍시, 난임 부부 '자연치유 캠프' 참여자 모집

정읍시는 난임 부부의 자연임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자연치유 캠프 참여자를 모집한다. 난임 자연치유 캠프는 난임 부부가 자연적인 생활로 돌아가 건강회복을 통한 자연 치유법을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캠프는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진안군은 생명평생교육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자연요법과 전통체조, 난임 치유식 만들기, 국선도 호흡 수련, 식생활 개선 등 친환경, 자연생활 체험을 통한 부부의 건강증진과 자연 난임 치유를 유도해 자연 임신을 꾀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

됐다. 참여 부부에게는 100만원 상당의 합숙 생활비와 교육비 전액이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중 전북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다. 오는 31일까지 난임 진단서와 주민등록 등본 등을 가지고 보건소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난임 부부 자연치유 캠프사업을 통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앞으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

Modern | Classic | Mediterranean Sea |

클래식 타일 | 지중해 스타일